



제주가 품은 오래된 이야기 30여년 붙들어온 돌과 바람

제주현대미술관 기획전
내달부터 김방희 조각전
1983-2019년 작품 망라
청년 시기부터 근작까지

그가 제주에 등지를 뜬 해는 1988년. 제주대 미술학과에 몸담은 일이 계기였다. 초반엔 이방인의 눈으로 제주 풍경을 바라봤지만 30여년 제주 살이를 이어오며 제주가 곧 일상이 되었다.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는 조각가 김방희. 제주의 돌과 바람을 붙들어온 그가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있는 제주도립 제주현대미술관 기획전으로 지난 조각 여정을 담아낸 전시를

갖는다. 11월 1일부터 펼쳐지는 '김방희 조각전 1983-2019, 하늘·돌·바람' 전이다. 김방희는 중학교 시절 만난 최병상 조각가(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권유로 미술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 권진규의 작품에 매료되며 조각가의 길을 걷는다. 홍익대와 동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한 그는 홍익조각회, 후기조각회, 청년작가회 등에서 활동했다. 1988년부터는 제주에 정착해 제주 미술인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현대조각에서 공공미술까지 여러 영역에서 작업을 벌이며 현대 조각계의 지평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부터 근작까지 40년 넘는 그의 작품 세계와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짜였다. 전시 작



김방희의 '돌, 인상(印象)-1101'.

품은 신작 설치 등 70여 점에 이를 예정이다. 이들 작품은 80년대 초반 청년작가 시기 제작했던 '하늘로' 연작, 1988년 제주 입도 이래 30여 년 천착하며 제주 풍경의 인상을 표현해온 '돌'과 '바람' 연작, 2000년대 이후 종교를 주제로 한 작품까지 초·중·후기로 나

닌다. 기존 조각 작품과의 연관성을 살릴 수 있는 공공미술 자료, 작품 세계의 변모 양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카이브 콘텐츠도 나온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4시 미술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는 2020년 1월 12일까지. 문의 064)710-7801. 전선희기자

옛 산양초에 내년 창작센터 문 연다

제주문예재단 운영 맡아
창작실·커뮤니티실 갖춰
제주도민 대상 명칭 공모

양창작센터' (한경면 중산간서로 3181)다. 공사비 등 총 24억6000만원이 투입된 산양창작센터는 제주는 물론 국내외 예술가들이 제주를 기반으로 창작과 교류 등을 펼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대지면적 1만2782㎡, 지상 1층 7개동 규모로 리모델링을 거쳐 창작실 7개, 숙소 7개, 공동창작실, 커뮤니티실, 회의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앞서 문예재단은 옛 제주대병원에 시각예술 분야 창작 레지던시 시설을 꾸렸지만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해 버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르면 내년 2-3월 개관 예정인 산양창작센터가 제주에서 창작하려는 각지 예술가들에게 얼마나 안정적인 창작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문예재단은 이 시설을 시각예술만이 아니라 문학 등 여러 창작자들에게 개방하고 지역민들의 창작, 커뮤니티

니티 공간으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이와관련 문예재단은 산양창작센터 개관을 앞두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운영방향 설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민과 예술가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만큼 창작센터 명칭도 별도로 공모에 나선다. 제주도민 대상 명칭 공모는 11월 18일까지 이루어진다. 응모작은 이메일(riveu@jifac.kr)로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문예재단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800-9142. 전선희기자

문화가 쫓겨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영화로 배우는 영상미학(11월 4-20일), 수중촬영 전문가 양성과정(11월 28-12월 1일) 2개 분야 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영상미학 교육은 동국대 정재형 교수가 강의를 맡고 수중 촬영 과정은 (주)아쿠아픽처스 조은진 대표가 강사로 초청됐다. 수강료 무료.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메일이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4)735-0613.

그리메창작연구회 회원전

그리메창작미술연구회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갤러리노리에서 일곱 번째 회원전을 열고 있다. 11월 3일까지 이어지는 회원전에는 김송하 등 10명이 '가파도의 꿈', '가을을 노래하다' 등 40여점을 출품했다. 지도고문인 김정기의 '토벌대가 가던 길'도 볼 수 있다. 전시 수익금 전액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된다. 2008년 아마추어 미술동호인회 '산마루'에서 출발한 그리메창작미술 연구회는 2017년 12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문의 064)772-1600.

김재이 작가 해녀 그림전

미국에서 제주 해녀 그림전을 열었던 김재이 작가가 제주에서 또 한번 해녀 그림전을 펼치고 있다. 11월 2일까지 제주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자리한 갤러리데이지(관장 장지훈)에서 열리는 '해녀의 의자' 전이다. 김재이 작가는 미네소타의 레드윙아트 갤러리에서 해녀 그림 작가로 활동해왔다. 김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감각적인 채색과 과감한 유희 기법으로 젊고 당당한 해녀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4)772-4200.

건축사진 공모 백기훈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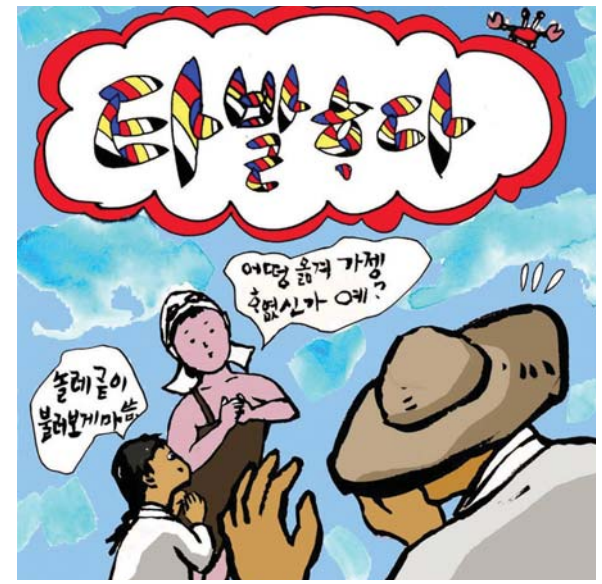
2019제주건축문화축제 건축사진 공모에서 일반부 백기훈의 '여유'가 대상작에 뽑혔다. 오정훈·김현준은 각각 우수상에 들었다. 일반부에 이은 학생부는 제주고 2학년 김정현의 '궁창의 풍경'이 우수상, 송민권(대기고 2) 송승민(제주제일중 3)이 각각 특선에 선정됐다. 제주대,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건축 관련 학과 대학생이 한 팀을 구성해 진행한 대학생 건축워크숍 대상은 '초속 3밀리미터'라는 주제를 제시한 6조에게 돌아갔다.

고재만의

제주의기림한관

<176>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좁네가 들어보덴, "하르바님-모도락하게 모담둔 죽은 바위덜을 어뎡 바당 우터레 7장 옮겨가쟁 흥업스신가에?" 하르바지가 곤는다. "아오야-그초록 말 곤카부덴 흥업져. 두린 바위덜 중에 타발하는 무심 몽니다리는 이섯저게. 모도락이 이신 죽은 바위덜을 무심냥 뚫디로 앓아불언게. 또 그 반면에 우낙이 신 바위영 저디 신 바위영 친부쟁 흥업이 부에가 향만이 난 걸 달레도 주곡 흥기도 흥언게." 멩이가 곽암스신게. "에-누님! 하르바님마썸! 우리도 흥디 흥업이 멩글아 불른 '펜안' 이렝 흥 놀레 곽이 불러보민 어뎡흥우파?"

* 제주어 풀이 *
*모도락하다(모도락하다): <그림>한곳에 잘 모아져 있다.
*그초록(그초록): <어찌>그처럼. 그렇게. *말 옮겨가쟁 흥업져: 말을 하려는가 했지.
*타발하다: <움직>서비나 좋고 나쁠을 가리다. 트집을 잡아 욕심각신하다.
*타발하는 무심 몽니다리: 트집 잡아 불가 하는 미운 놈. *무심냥 뚫디로 앓아불언게: 마음대로 옮겨버렸지. *친부쩌다: <움직>친할 수 있도록 정을 주다. 벗이 되게 하다.
*흥기도 흥언게: 하기도 했단다. *곽암스신게: 말하고 있네.
*흥디(7지, 7찌): <어찌>함께. 더불어.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이(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림>대어림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소>때가떨소/<의문말>의문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

전통과 창신... 남도 전각예술가 제주에

제주전각학연구회 교류전시
광주 무추사·목포 탁마 참여

제주·광주·전남의 전각 예술가들이 제주에 모인다. 제주전각학연구회(회장 오장순), 광주전각협회 '무추사'(회장 안재영), 전남 목포 '탁마'(회장 박영도)가 공동 주최하는 제주·광주·전남 전각교류전이다. 11월 2-7일 제주도문화회관 3전시실에서 펼쳐지는 이번 교류전은 지난해 광주에 이어 마련됐다. 시예와 병행해 전각 예술 창작 활동을 벌이는 3개 단체 회원 34명이 70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각은 인면(印面)에 인문(印文)

을 전사(篆寫)하고 배지해/ 조각하는 작업을 말한다. 일종의 인장을 제작하는 예술로 작은 방촌(方寸)안에 문자의 함축된 힘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과 창신이라는 전각예술의 큰 흐름을 감상할 수 있다. 제주 오장순 회장은 "최근의 전각예술은 크게 전통을 계승하거나 창신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전통성을 내세우는 쪽은 치밀한 구성과 활판(拙朴)한 아름다움에 무게를 두고 창신성을 지향하는 이들은 호방한 획질과 회화적 조형성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에 열린다. 문의 064)744-9851.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www.jeju-solar.co.kr